

출가 → 종정까지 '절구통수좌'의 수행기

“일대사 해결에 목숨 걸고 수행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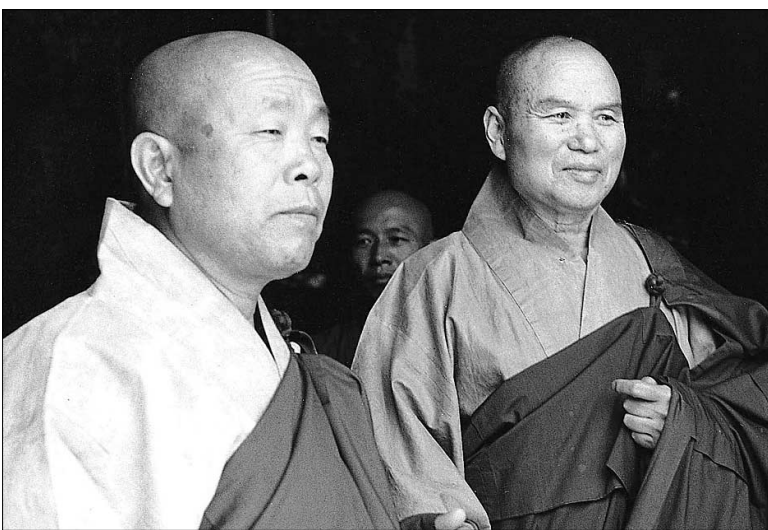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더’

법전스님 법어집

조계종출판사 / 2만원

그 시작은 평범했다.

1925년 전남 함평에서 3남 1녀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또래에 비해 말수가 적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속가에 두면 단명할 팔자’라는 역술가의 말 한마디에 부모는 아이를 출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성철 스님(오른쪽)과 함께 한법전 스님.

백양사 청류암에서 고된 행자생활을 겪었지만, 정자 사미계를 받는 인연은 불갑사에서 맺어졌다. 십여 년 간의 수행생활 후 ‘믿고 따를 스승’인 성철 스님을 만나 전통 선불교의 기풍을 되살리기 위한 불암사 결사(結社)에 참여했으며, ‘도림(道林)’이란 법호를 받았다. 그 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 하며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사람이 바로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海印總持) 법장 스님이다.

세월이 흘렀다. 이 사람이 바로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海印總持) 법장 스님이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는 법전 스님의 출가 수행기와 법어를 묶은 책이다. 흔히 종정 스님의 입적 후 법어집을 출간하는 관행과 달리, 취임 중인 종정 스님의 법어집이 출간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책에서는 평생을 선승(禪僧)으로 살며 수행에 매진한 이력과, 불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정’의 자리가 주는 신비감을 견어냄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스님의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기를 실은 것도 이 때문이다.

96년 이후 하·동안거 기간중 설한 법문 90여편 뽑아 실어

로 살며 수행에 매진한 이력과, 불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정’의 자리가 주는 신비감을 견어냄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스님의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기를 실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언제나 말없이 절구통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산처럼 우뚝하게 삼매에 들어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이 붙여진 법전 스님. 수행 생활이 담긴 이 글을 통해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생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일생을 수행에 매진해 온 스님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수행기에 이어 96년부터 올해 여름까지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중에 설한 법문 90여 편을 실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법전스님은

1925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해 42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호 스님을 계사로, 설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49년 성철·청담 스님 등과 함께 불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57년부터 66년까지 문경 대

성철·청담스님과 함께

49년 불암사 결사 참여

승사 묘적암과 태백산 토굴, 김용사 금선대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 했다. 69년

법전스님 어록

공부는 산을 뽑을 듯한 본심이 있어야 한다

“자성(自性)을 못 깨치고 죽으면 지옥이다. 그런 생각에 혼자 앉아 통곡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가슴이 빠개질 것 같은 울음이었다. 수좌에게 공부의 진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이것이 무엇인가!”

“공부는 본심이 있어야 한다. 산을 뽑아버릴 듯한 본심을 일으켜야 한다.”

“음력 시월 즈음이면 솔밭 사이로 달이 뜨고 찬 바람이 불죠. 내가 그렇게 쓸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묘적암 이후로는 웃기도 잘하고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웃을 일이 없었잖아요. 회두에 온 정신이 있었으니까.”

“도의 길은 따지고 분석하는데 있지 않다. 그저 마음으로 부딪쳐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수행자의 생명은 회두다. 다른 것은 없다. ...뜨겁게 한 생을 걸고 회두를 참구해서도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몽둥이로 나를 쳐라.”

“수행자는 순수해야 한다. 수만 갈래의 갈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순수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순수는 곧 지혜를 낳으며 무념, 무위의 평상심을 낳는다.”

부터 15년간 김천 수도암에서 머무르며 선원을 복원하고 수많은 남자를 제집했다. 85년부터 해인총림의 수좌로 머무며 해인사 주지, 해인총림 방장, 성철스님문도회 회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조계종 11대 종정으로 추대되었고, 현재 해인사 퇴실당에 주석하고 있다.

시연 절절한 ‘구도의 길’

불교·원불교·천주교 여성 성직자들
종교 귀의에 얽힌 아픔·이야기 소개

“왜 출가를 하셨어요?”

‘잠 잔다’를 얻기 위해 출가한 성직자들 보면, 으레 불속 생각나는 질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기도 하다. 성직자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자녀였던 이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겪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출가 이전의 삶에 대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뜻도 있으리라.

<출가>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세 종교의 여성성직자 12명이 ‘세계 평화와 종교간의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결성한

‘삼소회’ 회원들의 출가 인연과 종교에 귀의한 후에 겪은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1988년 설립된 삼소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명상기도를 하며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분의 출가사연은 이렇다.

진명 스님(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 = 처음 스님이 되겠다고 말을 꺼냈을 때 아버지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평생을 먹여 살려도 내 자식을 스님 못만든다’며 노발대발 하셨죠. 하지만 거듭되는 가족회의 끝



◊지난 8월 인천 강화군 백련사에서 기도모임을 가진 뒤 다담(茶談)을 나누고 있는 삼소회 회원들. 왼쪽부터 오인숙·양요순 수녀, 혜성 스님, 최주영 수녀, 양도승 교무, 혜영 스님.

에 ‘절에 가서 일주일만 살다 오나라’고 하신 말씀이 곧 출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최형일 교무(원불교 경기 파주교당) = 제 집을 떠나오던 날 아버지는 ‘이제 부모 슬하에서 떠나니 다른 교무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서던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인숙 카타리나 수녀(성공회 성가수녀회) = 한국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은 저는 여동생과 함께 성베드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터득하고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그렇게 수녀원에 첫 발을 디딘 후 벌써 40여 년이 흘렀군요.



‘출가’

삼소회 지음
슬리 / 1만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중일지	현희 지음	지영사
2	살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해봉 거사	불광
3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4	부처 통곡하다	정동주 이 름	
5	들숨남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담 스님	초기불현안권
6	깨달음의 거울	법정 스님	동쪽나라
7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이시우	종이거울
8	틱낫한의 비움	틱 낫 한	중앙M&B
9	불자의 삼립살이	우룡 스님	효림
10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캐렌 암스트롱	푸른 숲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역시아문 전화: (02)737-0695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蔘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용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현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력이 좋아졌다.
- ◆ 사지마력증이 나아졌다.
-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 손발 저린 것이 없어졌다.
- ◆ 인파산이 나아졌다.
- ◆ 변비가 나아졌다.
- ◆ 기력이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아졌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천식이 없어졌다.
-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시중가 10kg당 40만원에 20만원에 드리겠으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만삼생지10kg, 영기, 잔대, 삼계구연소, 영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 - 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1-9242-8292
● 농업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

회사육임도서안내

■ 활용서 ■

- 육임재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 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재정비법 350,000
- 육임재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문명예연비법(태야·길일·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 300,000
- 육임지각생생법 10,000
- 김홍상담자침록 20,000
- 육임재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전 12권, 부록, 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72,000

■ 학습서 ■

- 회사 육임강의록 (학습용)·(하(통용)서)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영판단법 130,000

회사 전국육임直講 안내 직강

- 서울 매주 금요일 「육사육」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육」 02-523-3030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통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육」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육」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육」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육」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육」 053-624-8680

○오행 기초·기초를 모르는 분들을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회사육임강의록·上·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회사육」에서 「문화회관실기지도 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 계좌 도서주문: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강의신청: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었음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검증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든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영추론에서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학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역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계위론서 비결 / 일간진인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인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 저 자: 오산 정대균
● 책규격: A-4별정지 620쪽
● 가 격: 220,000원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하나: 751-810033-42207
● 국민: 765202-04-019996
● 농협: 170202-56-037616
● 예금주: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 H · P 011-208-0051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법,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 ▶ 기간: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의: 수요일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일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 ▶ 지도교수: 김철을 박사
- ▶ 장소: 본 연수원
-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F)